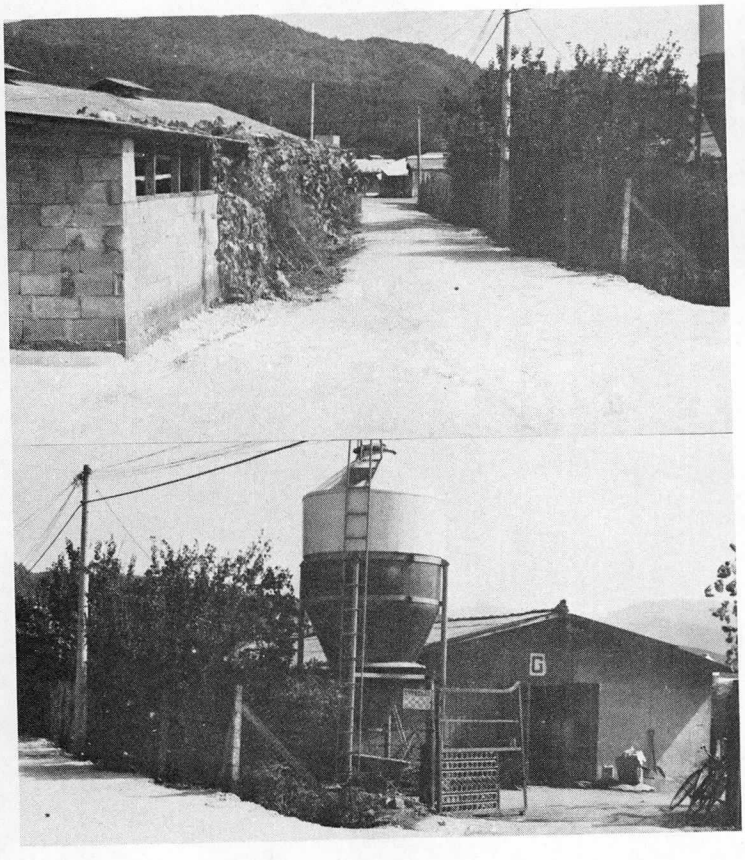
농장취재

세형제의 우애가 창출해 낸

정덕농장



농장앞에서의 두 형제 좌측이 형 이원재 우측은 동생 이종재

경기도 용인군 포옥면 신원리 342번지(0335-32-5641)의 정덕농장.

용인읍에서 전대리 가는 버스(66번)를 타고 용인자연농원 후문 경비소를 지나 신원리쪽으로 30분 정도 가게 되면 벌크사이로가 곳곳에 보이는데 이곳은 양돈인들이 스스로 양돈마을을 만든 양돈자생지역이다.

신원리 마을은 3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 용인자연농원 양돈장이 위치해 우리나라 양돈산업모든 면의 첨단 지역이다.

바로 이 동리에 「강(剛)한 칼은 부러지되 유(柔)한 칼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양돈인이 있다.

대한양돈협회 용인지부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정덕농장의 이원재 사장과 두 형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돼지심성을 닮은 돼지사장. 돼지가 일깨워 준 여러가지의 진리가 현재의 굽힐줄 모르는 양돈인을 만들었다고 ….

돼지 2마리로 시작한 양돈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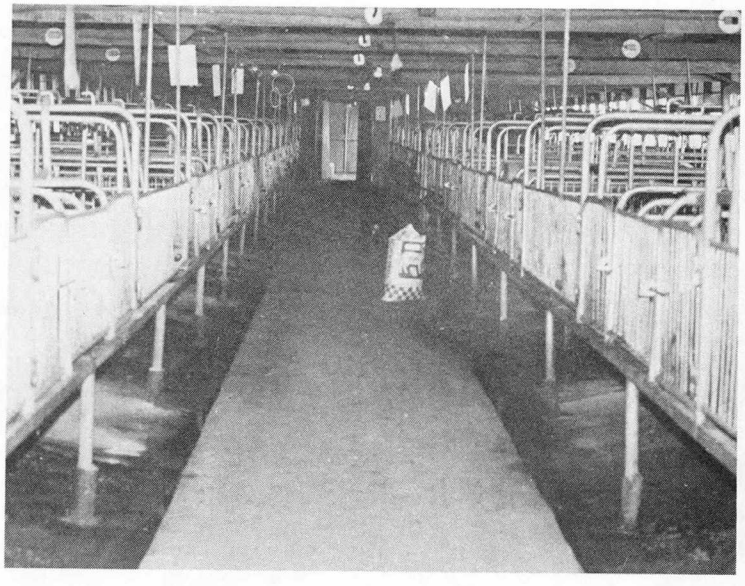
'75년 처음 아무 지식도 없이 돼지 2마리로 양돈을 시작한 이원재 사장.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돼지 2마리가 4마리가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었다며 돼지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등으로 계속 늘어갈 때 역시 눈가에 주름도 늘어갔다며 눈 주위를 붉히는 소박한 농민이기도 하다.

움막같은 돈사에서 돼지를 기르다. '79년도에 다 무너져 가는 돈사를 보다 못해 그동안의 결실을 2개동의 돈사를 신축하는데 투자하였고, 이때 공무원 생활을 하던 동생 이종재씨가 동업을하자고 해 본격적인 양돈을 두 형제가 일심동체가 되어 대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두 형제에게는 운이 따랐던지 이때 가장 심했던 '79년도의 양돈 불황때에는 돼지가 많지 않아 위험을 넘겼다고 하며 주위의 많은 양돈인이 이때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번 다시 이런 불황이 오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때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양돈인 스스로가 무덤을 판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양돈인 스스로의 수급조절을 강조하는 뼈대가 있는 양돈인이다.

그리고 이원재 사장은 양돈협회 비회원들이 돼지가격이 하락한다고 빈정거리면 그 자리에서 「당신들은 돼지값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꾸짖고 돈육소비 홍보분담금을 내는 우리(회원)들도 가만히 있거나 더 하락하지 않게 소비홍보, 사육두수 감축 등의 방법을 강구하건만 당신들은 떨어지는 감만 주워 먹겠다는 얌체족(비회원)들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냐」하면서 항상 모든 양돈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는 모범 양돈인이다.

또한, 이원재 사장은 '87년 양돈인 대회때 양돈사업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로 모범양돈 농가상을 받은 바도 있다.



형과 아우들의 농장으로 더욱 유명

'79년도에 동생과 함께 양돈동업을 시작한 이래 주위에서는 우애가 좋은 양돈형제라며, 보통 형제들의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성공하는 예가 되었으니 피가 물보다는 진하다는 사실이 이들 형제에게서 볼 수 있고, 또한 모든 양돈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재에는 녹십자에 근무하는 동생 이길재씨도 합류하여 세 형제가 완전한 가족양돈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양돈경영 구조는 맏형인 이원재 사장은 협회 업무와 농장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둘째인 이종재 사장은 회무관리, 사양관리를 그리고 세째인 이길재씨는 일반 양돈경영에 업무를 맡아 분업화를 실현했고, 농장장 1명외 직원 4명을 두어 복리증진과 인간미를 불어 넣어 정덕농장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 사회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서는 정덕농장보다는 3형제의 농장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원재 사장 스텔라, 이종재 사장 르망, 이길재씨 오토바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지 않겠지만, 이것은 이들이 농장 및 협회, 대외활동을 하기 위한 자가용이다. '80년대 꿈의 마이카(My Car)시대,이들은 양돈으로 그 꿈을 실현한 장본인 들이다.

돼자를 키운 것이 곧가를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농민이 하는 1차산업.

옛부터 농사꾼은 자기의 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우직하게 살아왔다고 한다.

이와같이 무슨일이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정덕농장 이원재 사장과 그 형제들의 경영목표이다.

호황, 불황을 무시한 양돈경영 어떻게 보면 이원재 사장의 양돈이 무대포 양돈경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농사꾼의 본 마음처럼 우직하게 양돈을 해온 사람이 현대 양돈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1년간의 예산을 결산해 보면 꾸준히 양돈을 하였을 때 결국 흑자 경영이 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현재 정덕농장은 총 1천두 규모로 14동의 돈사, 모돈 100두, 종모돈 14두로 완전한 전업농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장구조는 집주위의 직원숙소 1동, 모돈사, 자돈사, 스톨사를 두고, 주위의 땅 700평을 구입 새로운 돈사를 건립 비육돈사는 본농장에서 1km 정도의 거리에다 분리시켜 신축하였다. 역시 이곳에도 직원숙소 1동을 신축 직원들의 복리증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분만사에서 방금 태어난 돼지새끼에게 꼬리를 자르고 소독을 하는 모습

삼원교잡을실시한 정원 농장의 토실토실한 돼지 새끼들의 여가 풍경

특히, 이원재 사장은 처음 양돈을 시작할 때 삼원교잡을 실시하여 육질개선에 남들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었고, 이로인해 「KBS TV 앞서가는 농어촌」「MBC TV 잘살아보세」 프로에 나왔을 정도였다. 또한, 삼원교잡을 실시한 관계로 돼지출하시 타농장보다 20~30원 정도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돼지출하시에도 암놈은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 방법을 택하고, 수퇘지는 단골정육점에 출하하는 방식을 이용, 유통단계에서는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형제들은 사양관리에 있어서도 컴퓨터는 들여 놓지 못했지만 컴퓨터 못지 않은 완벽한 계획으로 종합일보, 번식카드, 임신돈 관리일보, 번식원장 등의 목록을 계속 정리하고 돈사내의 사료, 시설 전반적인 현황 및 상황판을 설치 한눈에 전 농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농장에 환기휀, 자동급이기, 히이

분만돈의 어미와 새끼

터, 바닥망 등을 설치 투자는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 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이원재 사장은 이 지역의 정화조 설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요즈음은 자동차 타이어가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한편, 이 지역은 많은 양돈농가들이 많은 수의 양돈을 하고 있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곧 단속이 시작되면 모두가 벌금을 물 정도였으나 이원재 사장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신원리 양돈마을 전 지역에 라인을 심어 용인자연농원 양돈장에서 쓰던 오물장 5천평에다 폐수를 처리할 것이라고, 이 공사는 2억 5천만원의 큰 공사비가 투입되고 그 계획을 작성 곧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원재 사장은 근래에 더욱 성취감을 느끼면서 양돈을 하고 있었다.

넓은 운동장 시설

노력한 만큼 댓가를 지불받는 양돈인이 될터

양돈협회 지부행사, 동리의 궂은 일 등 동생들에게 항상 너그러운 형님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원재 사장.

노력한 만큼 댓가를 지불받는 양돈인의 표본상이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농민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지게 대신 스텔라 자가용을 끌면서 지금「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진리를 실천하고 옛날 과객들이 쉬어가던 이곳 신원리에서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한 돼지아저씨이다.

이제는 눈이 어두워 농장일 하는 것도 어렵다면 세월속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다음 계획이라며, 다짐을 보이기도 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보게 할 정도이다.

근검이 몸에 배인 양돈인, 욕심이 없는 농민, 남을 위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노력하고 끈기를 가진 정덕농장의 이원재 사장, 잡초속에서 자란 모범 양돈인에게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다. 신원리의 정덕농장은 형제들이 우애가 좋은 농장으로서 전국의 양돈인에게 모범이라고 믿으면서 지역 양돈업무에 힘을 쓰는 이원재 사장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